

강진군 불금불파 시즌2... '지역경제 활력 충전'

19일부터... 열린 정원 투어 선풍 소비 촉진 떡메치기 체험 등

강진군이 오는 19일부터 '강진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 시즌2 행사'를 앞두고 현장 환경정비 및 사전홍보 공연을 갖는 등 막바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금·토요일 밤 EDM·DJ와 댄스 파티, 한골목 열린 정원 투어를 새롭게 선보이며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불금불파는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대거 관광객 유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민선 8기, 강진군에서 처음 선보인 행사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축제와 함께 엮어 로컬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만3000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진 불금불파 행사는 올해 강진 반값 여행의 해를

맞아 시즌2로 돌아오며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7개 실과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행사장 환경정비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진 불금 불파 시즌2는 19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4시부터 7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떡거리의 다양화를 위해 행사 음식점 및 매대 운영자를 모집해, 올해는 불고기 음식점 1개소, 분식 1개소, 매대 4개소와 청년 셰프존을 새롭게 구성해, 가족 단위 관광객 및 MZ 관광객들의 입맛 저격에 나설 예정이다.

불거리와 즐길거리도 더 강화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떡메치기 체험을 상시 진행하며 LED투립과 대형 꽃 조형물로 포토존을 강화해 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인생샷 명소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불금불파의 백미인 EDM DJ와 함께하는 댄스파티는 매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돼 축제 참가자들이 주말을 불태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

성한다.

올해도 불금불파 행사는 지역주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루어지며, 지난해에는 없었던 '한골목 열린 정원'이 새로운 볼거리로 마련된다. 병영면의 개인 주택과 공유지, 빈집 마을 호텔 등 모두 15개 구역에 소박하게 조성된 정원을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병영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관광객에게 알리는 색다른 홍보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골목 열린 정원 투어는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1회씩 마을 탐방에 나선다. 병영면 주민 주도의 병영 장터문화 한마당은 첫째, 셋째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할머니 장터와 농부장터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 등 살거리를 제공한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셔틀버스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유스퀘어 3번출에서 출발한다. 금요일에는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거쳐 가우도(망호)에서 트레킹을 한 후 병영의 대표 관광지인 전

라병영성과 하멜기념관 관람 후 불금불파 행사장으로 오는 코스로 강진의 대표적 관광지를 투어 할 수 있다. 오후 7시 40분 다시 광주로 출발한다.

셔틀버스는 온라인 버스 한바퀴 홈페이지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1층에서 오프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하멜감성 텐트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 강진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통해 축제에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불금불파는 강진의 대표 먹거리인 병영 돼지불고기와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로, 사라져가는 병영 전통시장이 불금불파로 명맥을 잇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축제로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강진을 통해 인구 유입과 동일한 경제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지난해 고소득 어업인 376명 진도군

진도군은 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을 조사한 결과, 376명으로 전년 371명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어업인을 발굴·홍보하고, 해양수산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을 위해 진행됐다.

지역별 고소득 어업인은 의신면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군면 135명, 조도면 31명, 군내면 24명, 임회면 19명, 지산면 15명, 진도를 7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 종사자 323명(85.9%) △어선어업 종사자 14명(3.7%) △가공·유통 분야 18명(4.8%) △기타 21명(5.6%) 등으로 조사됐다.

또 1억 이상~2억 미만의 소득은 206명으로 전체 54.8%를 차지했으며 2억 이상~3억 미만은 92명(24.5%), 3억 이상~10억 미만의 어업인은 71명(18.9%), 10억 이상은 7명(1.8%)으로 집계됐다.

군은 고소득 어업인의 증가요인으로 양식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어업활동 지원 등을 꼽았다.

김의 경우 지난해 조수입 1153억원, 전복은 1254억원을 기록해 양식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앞장 선 일등공신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양식어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양식어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양식어업을 비롯한 가공·유통·어선어업 등 진도군의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이마트 90개 지점 전복 할인 완도군, 11일까지 판촉전

완도군은 오는 11일까지 전국 이마트 90여개 지점에서 '완도 전복 최대 50% 할인 판촉전'을 연다고 8일 밝혔다.

4월부터 5월은 품질 좋은 전복 홍수 출하로 복날이나 명절에 비해 수요가 적어 가격이 하락해 전복 생산 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군은 전복 소비 촉진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 대전'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판매가격의 할인 폭을 높여 이마트와 함께 판촉전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4월5일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와 최재순 이마트 용산점장, 이승철 ㈜행복한전복 대표가 이마트 용산점에서 판촉전의 시작을 알리며, 전복 구매 고객에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완도 순살 전복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판촉 행사를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은 부담 없이 전복을 구입하고, 판매 증대로 이어져 여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전복 홍수 출하로 인한 여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완도 전복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신안군, 심폐소생술 교육

신안군이 지난 3월14일부터 3주간 신안소방서와 함께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총 13회 35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자료에 의하면 가정에서 2021년 44%, 2022년 44.7%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으며, 일반인이 환자를 발견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11.8%, 그렇지 않은 경우는 5.7%로 시행 시 생존율이 2.4배 높았다. 심정지 환자는 주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및 기타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장 대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물질로 인한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등을 교육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지난달 14일부터 3주간 신안군이 신안소방서와 합동으로 총 13회 35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펼쳤다. 신안군 제공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해남군, 30일까지 접수

해남군은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농 인증은 최대 5회, 무농약 인증은 최대 3회까지 지급한다. 유기농업으로 논(벼 등)을 경작하면 ha당 70만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 130만원, 과수140만원을 지급하며, 무농약의 경우 논(벼 등)은 ha당 50만원, 채소·특작 110만원, 과수 120만원을 지급한다. 6회 이상 유기농업의 경우 유기직불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청 농업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올해 12월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해남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전남도 "친환경유기농 생태마을 추가 모집합니다"

22일까지... 5월말 최종 지정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유기농 생태마을을 신규 모집한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벼·과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마을이다. 도는 유기농업 지속 확산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09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된 마을은 57곳이다.

벼 농가의 경우 10호 이상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 인증 면적 10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3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과수나 채소 농가는 5호 이상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 인증면적 1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의 30% 이상으로 구성원의 친환경 농업 실천 의지가 강해야 한다.

생태마을 지정을 바라는 마을은 오는 2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에선 검토를 통해 도에 추천하게 된다. 도는 추천된 마을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과 발표평가를 거쳐 5월 말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할 예정이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면 2025년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내용은 △유기농 확대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장비 등 최대 5억원을 지원받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마을주민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가꾸기 등 활성화 사업 4000만원 지원 △사무장 활동비(마을당 1명) 지원 등이다.

유덕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 실천에 적합한 지역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라며 "유기농 확산과 삶터·쉼터·일터로서 지속 성장하는 활기찬 농촌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간재 기자

영암군,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석달 만에 1억 돌파

영암군은 올해 들어 석달만인 지난달 31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8~31일 열린 '2024 영암왕인 문화축제' 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줄을 이으면서 한 뭉뚱했다.

축제에서는 박찬모 재경영암군향우회장을 포함해 오형근 재경영암군향우회장, 오남호 영암한국병원장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임정빈 영암군농협지부장은 농협재경영암군향우회를, 서윤준 NH농협 손해보

험 부장은 농협재경영암군향우회를 대표해서 이 행렬에 동참했다.

자매결연도시인 영암군과 경남 산청군도 2년 연속 상호기부부를 약속하고, 각 지자체의 250명 직원들이 참여해 2500만원 씩을 교차 기부기로 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